사계절 무한도의 환상적인 골프투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힘핑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함평IC 구간 왕복 통행료 환불 (탈퇴 동함평IC 영수증 프론트 제시)
● 무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내년 전남에서 만나요”

광주에서 펼쳐진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9일, 5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폐막됐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선수단과 공연단이 하나가 돼 내년 전남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양궁 김란숙 5관왕…광주 3위

장애인체전 어제 폐막
‘처녀 출전’ 전남 16위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5천400여명의 선수단이 5일간의 열전을 벌인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9일 폐막됐다.

개최지 광주는 종합3위(금 48개, 은 46개, 동 45개)의 성과를 거뒀으나 장애인체전 처녀출전인 전남(금 10개, 은 20개, 동 24개)은 최하위 탈출에 실패해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우승은 경기도에 돌아갔으며 2위는 서울이 차지했다.

광주는 9일 김란숙이 양궁에서 5관왕에 올랐고, 우대성과 최중선이 수영, 김세미가 역도에서 3관왕에 오르는등 막판 금메달 8개를 추가해 종합3위에 힘을 보탰다.

또 김용욱(남 양궁), 신인호(남 역도), 박태광(남 수영), 문병남(남 수영), 김동·김준영(남 탁구), 백은주·이정희(여 배드민턴)등 은메달 18개를 추가했으며 축구와 탁구, 휠체어테니스에서 동메달 11개를 보태는등 마지막날까지 종합3위를 위한 숨가쁜레이스를 펼쳤다.

전남은 9일 이대훈이 볼링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보탰고, 이성철·손옥존·서영준·유원종·박원경이 보치아 혼성 BC2단체전에서 역시 은메달을 추가했으나 성적 상승은 어려웠다.

또 김진성·이정오도 탁구 남자복식TT3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번대회는 장애인 체전사상 가장 많은 2천600명의 자원봉사자와 1대1 자원봉사자 1천234명이 체전기간동안 활동을 펼쳐 16개 시·도 선수단으로부터 극찬을 받는등 전반적인 대회 운영에서 성공체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10일부터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려 경기진행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옥에 티’로 남았다. 개최지 광주는 이번체전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온 것을 가장 큰 소득으로 꼽았으며 장애인 체육시설및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

전남은 지난해 12월 전남장애인체육회가 꾸려진 후 처녀 출전한 대회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1억1천만원에 불과한 적은 예산때문에 전국랭킹 2위의 농아축구단이 출전하지 못하는 등 배점이 높은 단체종목 출전이 적은데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선수단을 파견해 예견된 꼴찌를 했다.

하지만 역도 단일종목에서 금5, 은8, 동3개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대한민국에 첫 금을 안긴 사격의 이윤리(여·사격)를 비롯해 투자여하에 따라 내년 여수에서 열리는 제29회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발전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사격에서 비공인세계신기록을 세우는 등 대회 3관왕을 차지한 남자 명사수 이주희(36·강원)가 대회 MVP에 올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오늘의 히어로 양궁 5관왕 김란숙

“올림픽 금 재도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은메달에 머문 것을 조금 만회한 것 같아 기쁩니다.”

9일 광주시 서구 염주양궁장에서 열린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양궁 여자 리커브 개인전 ARST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켜 이번 대회 5관왕에 등극한 김란숙(여·41·지체 2급)은 “더욱 열심히 노력해 다음 장애인올림픽에서는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란숙은 이번 대회에서 7일 여자 리커브 70M 개인 ARST, 여자 리커브 60M 개인 ARST 금메달에 이어 8일 여자 리커브 개인종합 ARST, 여자 리커브 30M ARST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양궁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김란숙은 어릴적 소아마비로 장애를 겪게 됐다.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지난해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는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운동 경력 4년에 불과한 김란숙은 집중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심리 조절능력이 탁월해 장애인양궁의 대들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허정무호 불꽃 튀는 주전 경쟁

‘포백’ 가장 뜨겁다

곽태휘·강민수·김진규 ‘중앙 두자리’ 놓고 경쟁
김동진·이영표 등 4명 좌우풀백 터잡기 나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15일·서울월드컵경기장)을 앞둔 축구 대표팀이 불꽃 튀는 주전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허정무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8일 열렸던 컵대회 4강 플레이오프 수원-포항, 전남-전북 경기를 관전하고 어느 정도 베스트 11 윤곽을 그렸다.

9일 낮 12시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태극전사 24명을 소집한 허정무호는 이틀 뒤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질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이 UAE전을 앞두고 대표팀 전력을 점검할 수 있는 무대다.

허정무 감독의 전술과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최상 조합을 찾겠지만 주전 자리를 차지하려는 대표팀 내 치열한 생존 경쟁이 불가피하다.

가장 뜨거운 경합이 예상되는 포지션은 포백 수비 라인. 중앙 수비수와 좌우 풀백 중 어느 포지션도 만만한 곳이 없다.

중앙 수비수는 허정무 감독의 ‘원조 황태자’ 곽태휘(전남)와 이정수(수원)가 부상을 털고 대표팀에 복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정수가 컵대회 4강 포항전에 왼쪽 발가락 인대염으로 결장해 경쟁 대열에서 밀린 가운데 곽태휘와 강민수(전북), 김진규(서울) 등 세 명이 두 자리를 다툰다.

좌우 풀백은 김동진(제니트)-김치우(서울)과 이영표(도르트문트)-오범석(사마라)의 경쟁 구도.

그동안 왼쪽 미드필더와 윙포워드로 활약했던 김치우가 최근 제니트에서 출장 기회가 적었던 김동진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를 점한 상태이고 독일 분데스리가 이적 후 좋은 활약을 펼친 이영표가 대표팀에서 붙박이로 오른쪽 풀백을 지켰던 오범석에게 도전장을 낸 상태다.

허정무호의 공격력 부재를 없애줄 원톱 스트라이커 낙점도 고민거리다.

오른쪽 허벅지 부상으로 고생했던 신영록이 아직 제 컨디션이 아니어서 서동현(이상 수원)과 처음 태극마크를 단 정성훈(부산)이 최전방 공격수 후보다.

신영록은 포항과 컵대회 4강전에 결장했고 서동현은 후반 교체 투입됐으나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게 마음에 걸린다.

190㎝의 장신 스트라이커 정성훈은 이번 시즌 8골 3도움으로 빼어난 골감각을 뽐냈지만 대표팀 경험 부족이 약점이다.

서동현과 정성훈 중 한 명이 원톱 낙점을 받을 전망이다. 프리미어리거 김두현(웨스트브롬)이 무릎 부상으로 대표팀 엔트리에 들지 못한 가운데 전력의 핵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중앙 미드필더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캡틴’ 김남일(빗셀 고베)이 경고 누적으로 빠진 중원에서는 김정우(성남)의 중용이 유력한 가운데 기성용(서울), 조원희(수원), 송정현(전남)이 남은 자리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 U-16 청소년축구 8강

한국이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16세 이하(U-16)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시리아와 비겼지만 조 1위로 8강에 안착했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16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은 8일 밤(이하 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파크타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시리아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수비수 임창우(현대고)의 귀중한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거뒀다.

지난 4일 1차전에서 인도를 5-2로 꺾은 뒤 6일 인도네시아를 9-0으로 완파하며 8강행을 일찌감치 확정한 한국은 2승1무(승점 7)로 동률인 시리아에 골득실(한국 +12, 시리아 +4)에서 앞서 B조 1위가 됐다. 이로써 한국은 12일 자정 A조 2위인 홈팀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다. /연합뉴스

이바노비치 크렘린컵 탈락

올해 프랑스오픈 여자단식 우승자 아나 이바노비치(5위·세르비아)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크렘린컵(총상금 134만 달러)에서 초반 탈락했다.

이바노비치는 9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도미니카 시불코바(20위·슬로바키아)와 단식 2회전에서 1-2(6-3 2-6 6<4>-7)로 역전패했다. 올해 세계 1위까지 올랐던 이바노비치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첫 판에서 나가떨어진 셈이 됐다.

이바노비치는 마지막 3세트에서 두 차례 매치포인트를 잡고도 이를 살리지 못해 프랑스오픈 이후 윔블던 3회전, US오픈 2회전 패배 등 초반 탈락을 거듭하고 있다.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베이징올림픽을 기권하기도 했던 이바노비치는 “몸 상태는 괜찮다. 많은 경기를 통해 감각을 회복하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체전 성화 최종 주자 이용대·김중수 감독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최종주자는 ‘남도’를 대표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20·삼성전기·왼쪽)와 김중수(오른쪽) 감독으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이번 체전 성화채화에서부터 마지막 성화 점화까지 화합과 평화, 번영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뒀다.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저녁 6시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열릴 개막식에서 성화를 점화할 최종 주자로 2008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와 김중수 국가대표 감독이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림픽 당시 ‘살인 윙크’로 국민적인 인기를 모았던 이용대는 화순이 고향이다. 화순초등학교와 화순중학교, 화순실업고등학교 등 화순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이용대는 올림픽이 끝난 직후 귀향했을 때 대대적인 환영을 받기도 했다.

화순이 고향인 김중수 감독도 전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체육인.

오랜 기간 화순군청 감독을 지내다 2001년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발탁된 김 감독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배드민턴의 위상을 드높였다. 김 감독은 또 한국 배드민턴 최고 스타인 이용대를 초등학교 때 발굴해 국가대표 간판으로 성장시킨 명조련사이기도 하다.

지난 9월19일 강화도 마니산과 최서남단 섬인 신안 가거도, 해남 땅끝에서 채화된 성화는 6일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합화식을 가졌다. 성화는 지상에서 ‘라인로켓’을 통해 성화대에 점화돼 오는 16일까지 진남경기장을 밝히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태환 체전 목표

“자유형 全종목 한국新 바꾼다”

박태환 100·200·400·800·1,500m 現 한국新 보유
이번 대회 50m(김민석 기록)도 출전…싹쓸이 노려

‘자유형 한국 신기록 싹쓸이한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우리나라 체육사를 바꿔 놓은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10일 개막하는 제89회 전국체전에서 또 하나의 도전을 앞두고 있다.

바로 자유형 한국 신기록 석권이다. 수영에서 자유형은 50m부터 시작해 100m, 200m, 400m, 800m, 1,500m까지 6종목. 박태환은 현재 50m만 빼고 모든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500m는 2006년 말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14분55초03이고 800m는 7분59초02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아닌 800m의 경우 박태환이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1,500m 한국 기록을 작성할 때 800m 지점 턴기록이 곧 한국 신기록으로 남아있다.

자유형 400m와 200m는 각각 3분41초86과 1분44초85. 바로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할 때 낸 기록이다. 이는 한국 기록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기록이기도 하다.

여기까지는 박태환의 주종목. 장거리 전문 선수여서 400m나 1,500m에 주로 뛰었지만 중거리인 200m에서도 강점을 보여왔다. 자유형 100m부터는 단거리에 속한다. 박태환은 세계적인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에서는 충분히 통하고 있다.

박태환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단거리 자유형 1인자는 김민석이었다. 김민석의 기록이 깨진 것은 6년 만인 2006년 6월 울산에서 열린 경영국가대표 공인기록회였고 주인공은 박태환이었다.

박태환은 당시 50초39에 골인하며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고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49초32로 자신의 기록을 더욱 앞당겼다.

남은 것은 자유형 50m. 이 종목 한국 기록은 역시 김민석이 보유하고 있다. 김민석은 6년 전인 2002년 코리아오픈수영대회에서 22초55를 찍었다. 박태환은 한번도 이 종목을 뛰어본 적이 없지만 이번 전국체전에서 출전 신청서를 냈다. 가능성은 충분하다. /연합뉴스